

2023년 가을호

제 112호 2023년 9월 11일
서울대 기독교교회 소식지

진리는 나의 빛

창간 1994년

＋ 올해의 말씀 ＋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
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
를 멸시하느니라(잠 1:7)

발행인 • 성기문 / 편집인 • 권순희 이경진 최하영 / 학생기자 • 장동원 문예은 / 발행처 • 서울시 관악구 서림7길 대학춘교회 / TEL • 888-9111 / FAX • 888-9112

2023-2
서울대 기독교 연합
연합 사경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고성준 목사
수원하나교회

2023.
09.11(월)-
09.13(수) 19:00

26동 B102호(월)
26동 B101호(화/수)

수요 예배 후 식사교제가 있습니다.
문의 kabaotalk, 서울대기독교연합 instagram @seu_christianunion

연합 사경회

서울대기독교연합 연합 사경회가 9월 11일 월요일
부터 13일 수요일까지 26동 B102호(월), 26동 B101호
(화/수) 에서 열린다. 이번 사경회의 말씀은 고성준 목
사가 담당한다. 주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본문말씀은 마가복음 14:43-52절이다. 수요 예배를
마친 후에는 식교제가 예정되어 있다.

주요 기사 안내

- 간사칼럼 ... 안용준
- 중앙위원의 글 ... 김선아/박희성
서울대 비전스쿨
- 편집인 이임사 ... 이경진
학생기자의 글 ... 장동원
- 5면 선교단체 수양회 간증
서기연 MT
부흥 기도회
- 디딤돌 학교에서의 이야기 ... 김기찬
ISF 소식 ... 고동현
졸업생의 글 ... Camilo Varon
- 바이블 칼리지 후기
- 증강예배

간사칼럼



자 신앙인으로서 캠퍼스와 교회에서 살아가는 이들이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나 제 학부 생활은 그리 빛나
지도, 자랑스럽지도 못했습니다. 고민하고 방황하다가 제 동
기가 박사 과정을 끝낼 무렵에야 학부를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드높은 학점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모두
잡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와 같은 분도 있으실 테고요.
성적이 어떠한 학생, 신앙, 학생 신앙인으로서의 고민이 있
을 것입니다. 비슷한 고민을 했던 제가, 공부에 대해 나누고
자 합니다. 평점이 높아서도 아니고, 신앙이 좋아서도 아닙니
다. 제도권 공부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공부를 돌아볼 수 있
기 때문입니다. 공부의 의미와 목적을 덧셈, 뺄셈, 곱셈, 나눗
셈의 관점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2. 공부의 기본(1): 덧셈

첫째, 공부의 기본은 덧셈입니다. 공부는 지식을 더하는 일
입니다. 어떤 유튜브 쇼츠에서도, 태어나면서부터 “태정태세
문단세”를 입에 달고 나오는 아기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
니다. 차은우는 얼굴을, 이재용은 재력을 타고났습니다. 여러
분은 몰라도,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환
경은 다르더라도, 그들도 자신을 채워가야 했습니다. 덧셈의
관점에서 공부는, 자신이 무언가로 채워져야 하는 사람이라
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공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알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월감과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텅 빈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다
스리시는 세상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께
서 텅 빈 우리를 채우십니다. 욕의 고백은 고난 중에 하나님
과 씨름하면서 완성되었지만, 그 의미는 공부하는 우리에게
도 유효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 1:21)

3. 공부의 기본(2): 뺄셈

둘째, 공부의 또 다른 기본은 뺄셈입니다. 공부는 잘못된
것을 줄이는 일입니다. 순행제지(順行制止)라는 개념이 있습
니다. 순행제지란 “이전에 학습한 과제가 새로운 과제를 익
히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네이버 사전)입니다.
새로운 남친을 사귀었는데 헤어진 남친이 떠오르거나 그 이
름으로 잘못 부른다면, 비극적인 순행제지를 겪는 셈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덧셈 공부를 하면서 잘못된 개념을 익히
거나, 왜곡된 기억을 가지곤 합니다. 뺄셈의 관점에서 공부
는, 자신이 바로잡혀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일입니
다.

공부는 삐뚤어진 자신을 바로잡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므
로 실수하거나 약점이 드러날까 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삐뚤어졌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을
기뻐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다윗의 비
통한 고백은 공부하는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갭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

공부 = + - × ÷

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시 51:1-3)

4. 공부의 확장: 곱셈

셋째, 공부의 확장은 곱셈입니다. 공부는 지식을 연결하는
일입니다. 공부는 마치 요리와 같습니다. 덧셈은 재료를 준비
하고, 뺄셈은 재료를 다듬으며, 곱셈은 그 재료를 함께 굽거
나 삶거나 볶아서 하나의 음식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개별
지식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이 여러 사람과 사회와
연여 있다는 사실을 체감합니다. 곱셈의 관점에서 공부는, 자
신이 혼자자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
들이는 일입니다.

공부는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오직 자신이 기준
이 되어, 자기만을 위해 사는 이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
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이기적인 본성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통해서도 세상을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에 기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선포는 공부하는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엡 2:14-16)

5. 공부의 정리: 나눗셈

넷째, 공부의 정리는 나눗셈입니다. 공부는 지식을 정리하
는 일입니다. 곱셈으로 지식이 하나의 요리처럼 완성되었다
면, 그것을 먹기 좋게 적당한 그릇에 담아야 합니다. 요리의
완성은 먹는 것입니다. 요리 콘텐츠도 한 입 먹은 후에 ‘음~
’하고 감탄사가 나와야 완성됩니다. 공부의 완성은 자아를 비
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부한 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나눗셈의 관점에서 공부는, 우리가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일입니다.

공부는 섬기는 통로가 되는 일입니다. 공부하며 섬길수록,
자신이 누군가의 섬김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깨닫습니다. 그
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과 상황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셨음에 감사하며, 자신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
랑을 누리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
혜를 나눠 주십니다. 은혜 받고 수고한 사도 바울의 회고는
공부하는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
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전 15:10)

6. 공부의 목적: =

신앙인으로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과 하나
님을 알아갑니다. 내가 텅 빈 사람, 삐뚤어진 사람, 이기적인 사
람, 누군가의 섬김으로 살아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갑니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분, 회개하는 우리를 받아주
시고 변화시키시는 분, 깨진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분, 우리를
통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도 알아갑니
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러므로 공부의 목적은 등호(=)입니다. 타자(他者)인 지
식을 정복하고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자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부하며 겸손한 사람(텅 비어 있었기
에), 정직한 사람(삐뚤어져 있었기에), 관계적인 사람(자기만
알았기에), 섬기는 사람(섬김을 받았기에)이 되어갑니다. 자
신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며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
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공부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공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
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상의 예배입니다.

VERITAS LUX MEA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 9:10)

7. 결론: 온전한 공부

학교 공부는 성취에 대해 평가를 받습니다. 제 성적표에는 A+부터 F까지 다양한 점수가 매겨졌습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거의 모든 영역이 평가를 받습니다. 명확한 점수를 받지는 않더라도, 소위 “급(class)”이 나뉩니다. 학벌, 연봉, 외모, 배우자, 자녀, 우리의 인성까지 말이지요.

죄로 죽은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0점짜리’, ‘F’ 점수를 받아야 하는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롬 3:23) 하지만 심판자, 즉 우리를 평가하셔야 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즉 텅 비고, 빠들어졌으며, 자기만 알고, 섬김받았음을 망각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에 대해 그리스도께서 대신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시험지에서 그분이 대신 받은 평가는 0점, F,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온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은혜

와 진리가 충만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14)

빠들어진 데 없이 올곧으셨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히 9:14)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주셨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심은...” (고후 5:15)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막 10:45)

우리를 위해 온전하게 사신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100점짜리’, ‘A+’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고 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공부를 새롭게 조명하며 학업을 이어갑시다. 공부하는 인생 끝에 마주할 우리 주님의 얼굴은, 어쩌면 우리 서로와 그리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안용준(SFC 간사)

중앙위원의 글



쓰기 편한 글과 진솔한 글 사이에서 갈등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솔직한 것은 대개 투박해지고, 방어적인 말투가 묻고, 그래서 저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공동체 앞에 위선으로 머무르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어떤 사람에게도 어려운 마음을 주지 않기 위해 여러 번 쓰고 지운 글을 드립니다.

연합을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지금 와 생각해보니 어쩌면 연합을 섬기는 것보다도 힘든 건 연합을 사

랑하는 일이었던 듯합니다. 섬기는 것은 이따금 마음이 떠나 있어도 가능하지만 사랑한다는 것은 매 순간 온 진심을 다한다는 뜻이니, 연합을 사랑해보려다가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한 학기 동안 다양한 순간을 겪으면서 제가 치열하게 고

1학기 사역을 마무리하며

민한 것은 진리와 비진리의 경계였고, 권면과 주제넘음을 구분하는 방법이었고, 알맞은 헌신의 정도를 찾는 법이었습니다. 제 모든 신앙을 뒤흔드는 것만 같은 기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마저 이따금 잃어버릴 만큼 힘들고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 생각해보면 그 치열한 고민이 아버지께서 부르신 자리, 연합을 사랑하는 일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듯, 제게도 저를 향한 방식으로 찾아오신 그분을 그저 뜨겁게 사랑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너무 조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제게 오신 하나님이 이렇다고,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일에 다른 신앙을 배척하게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도, 제게 맞는 방식으로 예배하지도 못하고 한 학기가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가장 부끄러운 시간을 내보이며 생각하는 것은, 다름보다도 같은 것에 집중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미련입니다. 다른 것은 아버지께서 그분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은 지체와도 같은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동일한 사랑은 바로 우리가 연합하는 근본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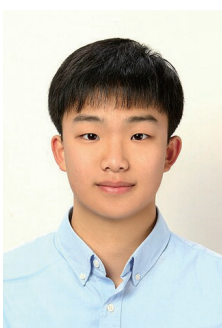
이유라는 것을 이제야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고백하고 사랑하는 자리에서는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었겠구나 싶습니다.(엡 2:14-16) 돌아간다면 앞뒤 재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더 말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연합은 어떠한 목적이 아니라 그저 자연스러운 것이었겠지요.

저는 비록 무너지고 쓰러진 채로 한 학기를 마무리하지만, 늦게나마 무너짐과 쓰러짐에 더 가까운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남은 것은 겪어보지 않고서는 배우지 못하는 저의 둔함으로 혹여나 잘못 없는 서기연 지체들을 다치게 했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사랑의 빛을 손바닥에 새기고 잊지 않겠습니다.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각자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의 이름으로 부를 수 있도록 세워진 서울대 기독교인 연합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아름다운 섬김의 자리를 허락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23년도 1학기 중앙위원 김선아

중앙위원의 글



작년 말, 군 전역 이후 다시금 캠퍼스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원했습니다. 학내에서 서기연의 존재에 대해 잘 몰랐던 터라 머릿속 중앙위원에 대한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래 잘 알고 지냈던 형이 서기연 대표직을 맡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사역을 하고 싶은 생각에 중앙위원직에 지원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중앙위원이 되고나서 학내 서기연

의 존재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질문들이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질문들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듬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서울대, 서로를 사랑하는 서기연

서기연이 학내에 여전히 필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미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학기가 시작하기만 하면 달리는 폭주기관차처럼 주변을 둘러볼 새 없이 지나갑니다. 그러한 삶은 기독교인이라고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각 기독교공동체에서는 주어진 사역을 문제없이 마치는 것에만 집중해도 시간이 부족하기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사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캠퍼스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나누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역보다 사랑을 해야 하고 기획보다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없는 우리의 모든 말은 울리는 뿔과리가 되고, 기도가 없는 우리의 모든 활동은 끊고 싶은 족쇄가 되기 때문입니다(고전13:1-3). 조금 돌아가더라도 한 걸음 늦어지더라도 사랑하고 기

도하는 모습을 회복하는 서기연이 되도록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롬8:26) 중앙위원을 하며 기도로 서울대를 섬기시는 중보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캠퍼스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든든한데 하나님께서 서울대를 사랑하시며 함께하신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벅차옵니다. 서울대와 서기연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며 성령님께서 탄식으로 기도하시기에 그분께서 이루실 역사를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23년도 1학기 중앙위원 박희성

서울대 비전스쿨

기독교수협의회 주관의 "서울대 비전스쿨"이 지난 8월 26일(토) 개강했다. 총 21명의 수강생이 모였고, 경영대학 주우진 교수님께서 교장을 맡아주신다. 본 프로그램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신앙과 전문 역량을 함께 훈련하는 크리스천 리더십 양성을 취지로 한다.

청년들은 캠퍼스에서 내년 초까지 기본 과정 및 전문 과정을 이수하고, 이후 해외 필드트립과 팀 프로젝트, 인턴십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이 기독교적 비전을 따라, 사회의 각 영역에서 선교의 주역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웹사이트: www.snuvision.org

편집인 이임사



진나빛이라는 애칭으로 더 익숙한 서울대기독선교회 소식지를 처음 받아든 것은 2011년 학부 1학년 때 서울대기독인연합(서기연) 개강예배에 참석하면서로 기억합니다. 진나빛은 그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서울대 기독인들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의 소식들을 나누는 소통의 창구로 존재하고 기능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분들이 어떤 수고를 거쳐 이 귀한 신문을 만드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2013년 즈음 사범대기독인연합 대표로 섬기며 진나빛에 글을 실을 기회를 얻었고, 2015년에 서기연 대표로 섬기면서부터는 진나빛 편집회의에 초대를 받아 신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어깨너머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제가 편집인으로 섬기게 된 것은 대학원 입학 3년차인 2018년 2학기 개강호(제92호)부터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편집인 및 기자님들의 뒤를 잇는다는 부담이 있었지만, 그만큼 이 섬김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이 있을 줄로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마침 진나빛은 제가 학부 졸업 이후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도 서

울대 기독인들의 모임과 활동 현황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나빛을 위해서라도 서기연 개강강예배를 비롯한 여러 기독 모임과 행사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고,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진나빛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더 나은 장이 되어 독자층이 확대될 수 있도록 모든 지면의 컬러화, 시기에 따른 설문 조사 시행, 특집기사 편성, 진나빛 pdf 파일 배포 등 몇 가지 새로운 시도들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하면서도 송구하게도, 1994년 11월에 제1호가 발간된 진나빛은 저의 임기 중 25주년과(2019) 제100호 발행을 맞이했습니다(2020.09.). 이에 제100호는 기념 축전 등을 포함하여 평소의 8면에서 12면으로 증면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진나빛 제100호를 기념하는 문집을 기획하였고, 많은 선배님들께서 흔쾌히 기고를 해주신 덕분에 약 1년여의 작업을 거쳐 이를 편집 및 발간할 수 있었습니다(2020.11.).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분에 넘치는 감격의 순간들이었습니다.

편집인으로 섬기면서 새삼스럽게 알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진나빛은 많은 분들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사실입니다. 대학춘교회에서 발행인으로서(박형대 목사, 성기문 장로) 또 편집인으로서(권순희 권사) 함께 해주셨던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획, 원고

수합 및 교정, 인쇄 및 배부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힘써준 모든 학생기자들에게(화학교육15 한상휘, 아동가족16 이은혜, 종교18 남명현, 언어19 이재백, 중문19 장동원, 산립21 문예은)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아낌없이 나누어주셨던 모든 기고자분들과 기도로 캠퍼스 사역에 동참해주신 대학춘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독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진리는 나의 빛(VERITAS LUX MEA)! 언제 들어도 가슴 뛰는, 이제는 저의 정체성과도 같아진 표어입니다. 별처럼 쏟아질 것만 같은 많은 기억과 감정들이 있지만, 이를 '사랑'이라는 짧은 단어로 싸매고 잠시 눈을 감아 봅니다. 누군가 진나빛을 섬기면서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이었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서울대 기독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소식을 조금 먼저 받아 보고 가슴이 뛰는 일이었다고 답할 것입니다. 특히 마음이 어려워지는 사회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 요즘, 애통함의 눈물로 세상을 끌어안으면서도 동시에 믿음, 소망, 사랑을 선포하고 살아내는 서울대 기독인들의 목소리가 위로로서 "예루살렘의 마음에 당도록 말하게" 하실 하나님을 다시 고백해 봅니다(사 40:1-2).

이경건(화학교육과 박사, 전 편집인)

학생기자의 글

2학기,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기독교 문학



기독교 문학 작품, 생각나는 것 있으신가요? 아마 초등학교 명작선에서 읽은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이나 수능을 대비하며 만난 윤동주의 시들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훌륭한 작품이 많지만, 점차 덜 읽히는 것 같습니다. 기독인 사이에서는 간증의 글이나 신학서 등이 문학 서적보다 더 주목받는 편이며 세상에서는 점차 기독교적 주제를 다룬 작품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첫째로 더 넓은 생각의 기회를 줍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나"를 바탕으로 신앙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대가

있고, 다른 장소가 있고, 다른 삶이 있습니다. 기독교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은 이런 다양한 환경에 대한 이해의 바탕이 됩니다. 둘째로 더 넓은 세상과 대화를 열어줍니다. 우리가 일상 중에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과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관련된 영화나, 기독교 알레고리를 활용한 그림을 보다가 신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진행될뿐더러 상대방의 흥미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문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같이 읽어보면 좋을 기독교 주제의 소설 두 권을 소개합니다.

페르 라게르크비스트, "바라바"(스웨덴, 1950)

페르 라게르크비스트, 그 이름을 발음하기 어려운 이 작품의 작가는 우리에게 가깝지만은 않은 스웨덴 분입니다.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은 루터의 종교개혁을 빠르게 받아들인 국가들로 나라 곳곳에 아기가 지닌 목조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국가들은 20세기 들어 사회에서 기독교의 역할이 가장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국가들에 속합니다. 과학과 사회의 성찰 없이 빠른 진보, 두 차례 세계대전으로 유럽이 겪은 정신적 공백 등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라게르크비스트의 "바라바"는 이런 변화의 시기에 쓰인 작품입니다. 바라바는 모두 한번쯤 들어봤을 이름이지요. 유대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유월절을 맞아 전통에 따라 사형수를 석방하고자 할 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아닌 도적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이 바라바가 석방된 이후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를 추적하며 믿음에 대한 고민을 풀어놓습니다. 풀려난 바라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 궁금함을 가지게 됩니다. 예전처럼 도적질에 어울리지 못하는 그는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믿음 때문에 기꺼이 죽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가까이하고자 하지만, 그가 예수님 대신 살게 된 바라바라는 사실을 알자 배척당합니다.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최후의 순간에 없었고 그가 본 예수님의 죽음과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죽음이 다르다는 사실은 바라바를 고민에 빠지게 합니다.

바라바의 고민은 작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새로 등장한 과학은 성경의 말씀과 서로 충돌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시대 앞에 무력하던 당시 교회에 작가는 방황하였습니다. 그는 늘 "믿음과 믿지 못함 사이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믿고 싶다."라는 말을 반복하는 바라바는 작가의 쓸쓸한 분신 같습니다. 21세기 오늘에도 이와 같은 고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변의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미우라 아야코, "양치는 언덕"(일본, 1966)

미우라 아야코(三浦綾子)는 일본에서 아주 독특한 작가입니다. 먼저 그녀는 홋카이도(北海道)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에게 홋카이도는 아름다운 관광지이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원주민이 살던 땅에 일본인들이 근대화와 함께 진출해 살기 시작한 곳으로, 매선 추위와 거센 눈보라로 다른 지역보다 발전이 더디었고, 문학의 토양 또한 제대로 서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독교인입니다. 일본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 인구는 1%로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적습니다. 일본 문화 안의 사메리즘 전통, 오랜 박해의 역사, 남에게 권하는 것도 거절하는 것도 꺼리는 문화 등이 그 까닭이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홋카이도의 아름다운 풍경에 기독교 주제를 그려낸 미우라 아야코는 일본 문학계에서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작품들은 주로 죄와 용서, 구원이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그녀의 데뷔작인 "빙점" 연작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에 따라 행위하다가 서로에게 끊임없이 죄를 짓는 상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단란하던 가정은 그 죄의 진상이 밝혀지며 파국에 이릅니다. 그 끝에 하나님을 만나고 서로를 사랑으로 용서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는 삶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녀가 투병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과정을 그린 "길은 여기에" 또한 수작입니다.

"양치는 언덕"은 결혼을 바탕으로 한 작품입니다. 목사의 딸로 자란 주인공은 화가인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 집에서 나오지만 믿지 않는 남편과의 결혼생활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는 술에 찌들어 살았고, 불륜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주인공과 남편,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기독교 공동체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개강 3주차이지만, 벌써 종강 후 겨울방학을 기다릴 여러분에게 홋카이도의 차갑고 아름다운 풍경을 가져다줄 수도 있겠습니다.

소개해드린 작품에 대해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아래 연락처로 연락 남겨주세요.)

010-2366-0036/changdongwon@seoul.ac.kr

장동원(중어중문학과 19)

YWAM Udts 훈련

나의 UDTs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여름방학부터 UDTs라는 외웁(YWAM)의 제자훈련학교에서 훈련받는 중인 박종명이 라고 합니다. 이 훈련은 대학생들로 하여금 삶 속에서 성경적인 원리원칙들을 적용하여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성품을 개발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회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자발적으로 세계선교에 참여하게 하는 훈련 과정입니다.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하자면 여름방학에는 천안에서 지내면서 여러가지 강의를 듣고 매일 기도와 예배로 훈련하며, 2학기에는 학업을 병행하면서 훈련받은 것을 바탕으로 캠퍼스에서 사역하고, 겨울방학에는 한 달간 해외 전도 여행을 다녀오면서 훈련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훈련을 받기로 결정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이었습니다. 올해 초 제가 준비하던 시험에 불합격하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다시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때 불현듯 떠올랐던 게 바로 UDTs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안에 시험을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기에 갈등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학기 개강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

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으로 응답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UDTs 훈련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훈련을 시작하며 첫째로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 계획하신 비전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두 가지 기도제목이 있었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 기준으로 어느덧 훈련 7주차가 되었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두 가지 기도제목에 대해 예상을 뛰어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먼저 저의 과거 죄를 회개하고 상처들을 회복하는 내적치유기간을 보내면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유기간 이후에 제가 하나님께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나고 싶다고 계속하여 구하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둘째로, 제가 비전을 계속 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훈련 중 강의를 통해 비전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따라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홀로 높이시며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비

전을 성취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는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결과물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산 제물이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기에 비전을 받는 것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 제물로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를 통해 그 계획하신 일을 자연스레 이뤄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지 성경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으로 글을 맺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 - 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박종명(영어영문학과 18)

ESF 여름수양회

2023년 ESF 전국 여름 수양회 소감

대학생 선교단체 ESF에서는 학기 중에는 캠퍼스에서 큐티, 셀모임(요회), 일대일 성경공부를 진행하고 매주 정기적으로 목요 예배를 가집니다. 방학 중에는 전국 여름 수양회, 겨울 수양회를 통해 다른 캠퍼스의 학생들과 교류하고 말씀공부와 찬양, 기도회를 가집니다.

저는 6/27~7/1 4박 5일 동안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열린 전국 여름 수양회에 참여하였고, 그 곳에서의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수양회에서의 주제는 '그의 길을 따라'였고 주제말씀은 마가복음이었습니다. 마지막 학년으로 참여하는 수양회였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로 4년만에 참여했기 때문에 조금의 설렘과 낯설어 하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수양회의 스케줄은 크게 아침강의, 조별모임, 주제강의, 기도회로 구성되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기반으로 네 가지 활동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침강의는 ESF 간사님들이 학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주제의 강의를 열어 선택해서 듣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독교 교단과 교파에 대한 강의와 비전과 소명 발견하기를 들었습니다. 기독교 3대 교파인 카톨릭, 개신교, 동방정교회의 시작과 개신교 분파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역사, 특히 종교역사에 대해서는 무지했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배운다는 느낌으로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비전과 소명 발견하기는 우리에게 비전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소명을 발견하기 위한 질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대학교에서 학부생으로서 마지막 학년이기 때문에 진로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 듣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해 주진 않았지만, 직업적인 진로에만 치중하는 것을 경계해야 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아침 강의를 있었지만, 시간의 한계로 두 강의만 들었고, 강의를 하신 간사님이 많이 준비하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제강의는 80분씩 6번에 걸쳐 1장부터 16절까지의 마가복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자 마가,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의 배경과 환경과 서신의 의도를 설명하셨고 이를 통해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개회설교를 시작으로 충격적인 예수님(2장-죄를 사하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제자사관학교(제자를 부르시고 양육하심),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10장-하나님 나라를 소

한 어린아이의 모습, 부자 청년과 바다매오 이야기), 죽음을 죽이는 죽음 그 십자가의 역설(15장-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16장- 승천하기 전 예수님의 꾸짖으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공생애 동안의 예수님이 밟으신 길을 담담히 따라갈 수 있었고 그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설교를 마친 후에는 1시간 정도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설교 내용에 기반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할 내용들을 인도자가 이야기해 주시며 기도회를 이끌어주었고, 저는 제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기도를 했습니다. 첫날에는 잘 집중이 안되고 마음이 굳어서 기도가 어려웠고, 수양회 기간 동안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말씀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마지막 기도회에서는 ESF에 들어온 새내기들과 각 회관 ESF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개인적인 기도에 집중하였었는데,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할 때 기도가 풍성해지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름 수양회에서는 회관에 관계없이 선별해 4-6명의 조를 만들어 조별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른 회관의 다양한 사람들의 배경, 소감 등의 이야기를 들으며 경험을 공유할 수 있고, 학년 별로(새내기, 동역자, 리더)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깊었던 것은 같은 조에 관악지구 서울대본이 계셨고, 그 분을 통해 관악지구에 서울대ESF 활동이 잘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서울대 캠퍼스에 소속되어 있지만 동작지구이기 때문에 관악지구와 교류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4박 5일의 수양회는 생각보다 짧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일정이 반복되어서 그렇게 느꼈을 수 있고, 수양회에 잘 집중해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4년 만에 참여하는 수양회는 어색했지만 이질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4학년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새내기나 동역자로 참여했던 과거의 수양회와는 다르게 졸업반이고 공동체를 곧 떠나게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2017년에 ESF에 가입했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우여곡절을 겪었기 때문에 7년간의 경험은 대학생활동안 느낄 수 있던 좋은 신앙적 경험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김승찬(약학과 18)



IVF 수련회 후기



15년 만에 개최된 IVF 전국 수련회. 4박 5일간의 기억이 흠뻑
려지지 않게 붙잡아본다.

하나된 사랑
전국 수련회의 특성상, 각지에서 모인 800 명의 IVFer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하지만 어색한 분위기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첫날부터 사라졌다. 앞뒤로 낯선 이들이지만 한마음으로 노래하고, 처음 보는 조원들과 삶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른 곳에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열린 마음이, IVF,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좋은 특징 아닐까 싶다.

사랑이란 뭘까, 생각해 본 수련회였다. 아무도 그 의미를 모르는 추상적인 단어가 사랑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받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이로서 추상적으로 내려뒀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예시들을 떠올려봤다. T 형은 대표로 1년간 섬기면서, 또 나를 전담마크 하면서 많은 사랑을 보여주었다. SM 누나도 닭이 병아리를 챙기듯이 진심을 담아 나를 챙겨주었다. 때로는 강렬하게, 때로는 은은하게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런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다는 기대를 했다.

새로운 기대
엠마오 제자들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 예수를 정치적 구세주로 여긴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좌절해 분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동행에게 그런 절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가 부활한 예수인 것 아닌가. 그들의 낙심과 냉소는 기대와 환희로 변화된다.

저번 학기 나와 겹쳐 보았다. 초반에는 잘못된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 기대를 해보았는데, 잘 되지 않자, 어떤 기대도 안 하고 "알아서 하시겠지~"의 마인드로 변질되었다. 일종의

한어름밤의 꿈

냉소이자, 아무리 작은 것 하나도 기대했다가 여지없이 무너질 것 같아 두려워 둘러친 울타리였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셔 왔다. 돌아보면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많이 주셨음을 느낀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누린 경험이 얼마나 많은가). 성화의 영역에서도, 1년을 돌아보면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 특히나 이번에 스스로 느끼고 놀란 변화의 포인트는, 전도의 영역이었다.

전도의 확신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해야 하는 건 알지만 회피하는 영역이 "전도"다. 난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 것에 더해 확신이 없어서도 있었다. 복음의 유익을 확실히 체감하지 못했었어서 아직 전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수련회 조장으로서는, 확신 없는 스피커가 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눔과 성경 연구에서 모든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었다. 또, 아직 완전히 믿지 않는 친구와 대화하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영업사원이 아니라, 진짜 내돈내산 추천하는 친구처럼...

왜 이렇게 바뀐 걸까? 경험의 폭이 넓어지고, 그동안 받은 유익이 참 많아서, 같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이 세계관에 젖어든 것이다. 그리고 주변에 이 라이프스타일을 추천할 의지도 있다.

수련회의 꿈
수련회의 역할은, 꿈을 꾸게 하는 것(골2:28)이라 들었다. "비전"이라는 말이 더 나올지도 모르겠다. 환상(Vision)인 동시에, 목표로 삼고 나아가는 큰 그림(Vision). 수련회에서 꾸었던 꿈, 보았던 비전을 잊지 않고 일상에 구현하기를.

김주형(산업공학과 21)

서기연 여름 MT



열심히 언제나 의미 있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

다. 땀뻑한 여름 방학 일정에 MT 날짜를 맞추고자 바쁜 상황 속에서도 기획단에 자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한 날짜로 인해 초대하고 싶었던 한 영혼이 MT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간식을 사 두기 위해 낮에 홀로 두 시간이 넘도록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기다리던 것은 뜨거운 햇볕과 다음 날의 몸살일 뿐이었습니다.

학기 중보다 바쁜 여름 방학을 보내며, 첫 기획단 모임을 하기도 전부터 지쳐 버렸습니다. 이대로 기획단을 하는 게 맞을지, 그냥 빨리 그만두어야 할지 고민도 했습니다. 계속 마음에 품었던 한 영혼이 MT에 오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느 때보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피약별 속을 걸으며 주님께 물었습니다. 이 일에 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나는 이 일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이런 무의미해 보이는 일에 왜 계속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느냐고.

주님께서서는 저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MT 당일의 찬양과 강의 시간. 굉장

의미

히 지쳐 있던 그때 가장 먼저 부른 찬양은 다름 아닌 "새 힘 얻으리"였습니다. 그날 부른 모든 찬양이 주님께서 제게 해 주시는 말씀으로 느껴졌습니다. 강의하러 와 주신 홍원의 선배님께서 노력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관해 말씀하실 때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주님께서 내 상황, 내 마음을 아심을.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음을.

그다지 새 힘이 돌아나지는 않았습니

다. 결국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기에, 어쩌면 이 시간도 그저 무의미하게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열 명이 둘러앉아 함께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의미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제가 사랑한다는 사실. 힘든 마음을 위로하시고 안식을 주시며 저의 의미가 되시는 주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정명진(수의예과 23)

부흥기도회 소식

지난 5월 24일(수)에는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라는 행사명 하에 26동 B101에서 서울대 연합부흥기도회가 있었다. 연합부흥기도회는 본래 서울대 BIBLE COLLEGE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진행된 서울대기독교학교의 연장선상에서 기획되었다. 하지만 이를 서울대기독교인연합, 기독교대학원생모임, 기독교수협의회, 교직원신우회, 학부모기도회, 서울대학교교회, 서울대기독교학교가 공동으로 주관하면서 서울대 기독교인들의 연합 행사로서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리드리게 되었다. 기도회 당일에는 약 250

명이라는 당초 예상



디딤돌학교에서의 이야기

시흥에서 아프간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국어 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석사과정 3학기 김기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부 때 사회과학을 공부하고 나서 진로와 방향성을 갖고 기도하던 중 '시편 72:17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말씀을 붙잡고 모든 민족의 복이 되는 한국어를 가르치고 도와주는 사람인 한국어 교육자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깨닫게 되어 석사과정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1-2학기 때는 이론과 학문에 매진하며 지내던 중 23-1학기 사랑하는 지체의 나눔을 통해 '전도서 11:6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말씀을 듣게 되었고 디딤돌학교라는 다문화 학생들 대상 한국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르치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느껴 지원했지만, 앞으로 선교하며 만나야 할 사람들을 생각하며 가장 좋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아동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아이들과 같이 장난이 많고 떠드는 아이들인 줄 알았지만 아이들은 다른 문화에서 비교적 쉽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대한민국에 온 이방인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는 일에서부터 '할랄'이라는 법칙 곧, 돼지 고기를 먹어서는 안된다는 원리를 마치 생명과도 같이 지키고 있다는 모습에서 무슬림 아이들이라고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규칙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쿠란도 어기지 않으려는 순수한 아이들에게 그들의 부모님이 강조한 종교 교육이 적용되는 것을 보며 아이들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으면

ISF 소식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ISF 간사 고동현입니다. 귀한 자리를 빌려 ISF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SF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려면, 먼저 ISF에 대해 소개를 조금 해야할 것 같습니다. ISF는 International Student Fellowship, 즉 국제학생회의 약자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봉사 동아리입니다. 봉사 '동아리'로서, 서울대학교 동아리연합회에 중앙동아리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학부생 회장단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많은 학부생들이 한국어 선생님이 되어서 유학생들을 만나고, 유학생들과 친구가 되고,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봉사시간도 챙겨주고, 유학생 친구도 사귀고, 영어도 연습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좋은 동아리인가요?

그런데 또 특이하게도 ISF는 본부를 두고 있는 법인이기도 합니다. 1997년 이상일 교수님과 크리스천 교수님들이 서울대학교 ISF를 세우신 이래로, 2011년에는 외교부 비영리 사단 법인이 되었습니다. 서울대 ISF는 여러 대학의 ISF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지부로서 활동하고 있죠. 사실 타대학 ISF는 대개 간사 중심으로 운영되어서, 학부생 회장 중심의 동아리인 서울대 ISF는 특이 케이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서울대 ISF에서는 학부생 선생님들과 함께, 인근 교회에서 오신 봉사자 선생님, 본부에서 파견해 주신 선교사 선생님 등이 다 채롭게 섞여서 수업이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 ISF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아무런 대가나 기대 없이 나누어주는 봉사와, 복음을 듣기 원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대 대학원 졸업생의 글



legal documents necessary for obtaining identification certificates,

On the 20th of March 2020, a total quarantine was decreed in Colombia. Everybody was scared, and by watching the news, one could see that the whole world was in a rush of panic and fear. At that time, I had started my application for my master's course in Germany because I had always dreamt of studying in that country. I had printed and filled out dozens of forms, read many others, and collected numerous

얼마나 좋겠는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육 프로그램 가운데서는 직접적 복음을 선포하지는 못하나, 대학원 입학 전에 노방에서 만났던 이슬람교도와 같이 복음을 논리적으로만 보고 거부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4명의 아프간 아이들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쉽지 않아 교육하는 것도 조금 버겁기는 하지만 분명 아프간에서 아이들이 한국에 왔고 저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갖고 기도하며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있으며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복음의 소식을 아이들에게도 들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론 아이들의 어휘나 표현이 매우 유치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것 같아 답답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유가 있으신 선하신 분이시라는 생각을 하며 인내하기도 합니다.

저는 스스로 한국어를 가르친 경험이 부족한 것인지, 아동을 다루는 스킬이 부족한 것인지, 매번 계획하였던 수업의 내용을 다 하지 못하고 일부만 하고 돌아올 때가 많았으며 한 학기 동안 어휘나 표현이 향상되길 바랐으나 단순히 한 말을 칠판에 써주고 따라 쓰게 하는 것이 아프간 아동들의 쓰기 능력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 회의적일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이들의 시간과 제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아동들이 말을 안 듣고 수업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왜 이리 멀리까지 와서 내가 고생을 해야 하는가'하는 마음에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동들에게 꾸준히 와서 칭찬하고 격려하며 아동들이 한국어를 사용하고 배우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가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

이번 학기에도 110명이 넘는 외국인 학생들이 몰려와 함께 한국어를 배우고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중 60% 이상이 10주 한국어 수업을 수료했구요. 한국어 자모를 모르는 교환학생에서부터 K 드라마를 꿰고 있는 유학생까지, ISF의 이름으로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소풍 날이었던 5월 13일 올림픽공원의 간이 처마 아래에서 비를 피하며 곰 세 마리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유학생들은 아낌없는 섬김에 감동을 받기도 하고, 타지생활의 외로움을 잊고 서로 즐겁게 교제합니다. ISF는 유학생이 한국인 친구를 사귀는 곳이기도 하지만, 유학생들끼리도 건전하게 좋은 추억을 쌓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동아리로 운영되는 서울대학교 ISF에 간사가 다시 세워진 것은 꽤 오랜만의 일입니다. 저도 처음부터 간사였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2016년 학부 동아리 회원으로서 ISF 활동을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교환학생을 가기 전에 영어를 연습하겠다는 목적이었는데, 한국어 교육이 적성에 맞아서 재미있게 활동하다 보니 회장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대학원에 진학하고, 간사까지 되었습니다.

저는 왜 8년째 ISF에 있을까요? 저도 ISF를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봉사활동을 한다는 뿌듯함은 있었지만, ISF 활동이 제게 충분한 채움이 되지 않을 때나, 삶이 버거울 때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을 떨치기 어려웠습니다. 간사로서의 책임과 일들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도 생각했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거나 기한에 쫓겨 겨우 일을 처리할 때는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처음에 저는 제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 또한 제 뿌리 깊은 자기중심성에 의한 것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사명감은 결국 제가 이 일의 주인공이라고 시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

게 되었습니다.

제가 단어와 문장을 가르치고 아동들에게 말하고 쓰게 하는 일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며 또한 한국어로 '예수를 말하고 또 십자가를 말하고'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섬김과 관계를 통해서 일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보며 아프간 아동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과 환대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아동들이 가끔 소리를 지르거나 아동이기에 나를 자기가 재밌어하는 '똥'이라는 대답만 할 때가 있지만 이 또한 아프간 아이들이 한국어로 의사소통하고 싶는데 얼마나 표현이 어려우면 답답해서 하는 행동인지를 공감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타국에서 어려운 언어를 배우는 아프간 아동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랑과 소망의 이야기를 전하는 통로로서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고자 합니다.

제가 앞으로 보낼 받을 현장에서의 의사소통이 어떨지는 모르나 예상되기로는 문화적, 사회적 격차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도 분명히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사랑과 섬김으로 소통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 아프간 아동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수업 방해 행동들이 줄어들어 수업을 즐겁고 재밌게 참여할 수 있기를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사로서 제가 아동의 행동과 말을 잘 도와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찬(한국어교육 석사과정)

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제가 간사가 되기 위해 무엇인가 노력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저를 적절히 준비시키시고, 적합한 상황을 마련하시고, 또 해야 할 일을 알려 주셨습니다. 위태위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일들을 해 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ISF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사람은, 신앙이 깊고, 외향적이어서 외국인 친구들을 편하게 해 주고, 영어도 유창하고,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지식도 풍부하며, ISF에 할애할 시간도 많은 사람일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분도 있습니다. ISF 차원에서는 놀라운 은혜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상적인 분들만 ISF를 위해 준비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성경 속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저처럼 안정감 없는(?) 간사도 세우셨습니다. 영어를 못해 울상인 선생님,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선생님들이 학기가 끝날 때면 학생들의 사랑을 받는 선생님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 기간 거의 무너질 뻔한 ISF를 지켜준 분은, 캠퍼스를 떠나고도 없는 시간을 쪼개어 ISF의 일들을 처리해 준 회장이었습니다. 크리스천도 아닌 이분은 무거운 사명을 거의 3년 동안이나 감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신앙이 없어도, 내향적이어도, 영어를 못해도, 한국어 교육을 몰라도, 시간이 없어도, 그래도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ISF에서 그런 하나님을 소망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학기 함께 ISF에서 한국어 교육이라는 특별한 섬김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ISF에 많이 지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동현(ISF 간사)

In the Company of Divine Learning: A Journey of Faith and Transformation

experience statements, and qualifications to secure a university position anywhere. When the total quarantine was decreed, I felt hopeless, thinking that I had wasted my time and money applying and preparing to travel. Furthermore, airports and offices were closed, and the entire world seemed to be falling apart—much like my dream of studying abroad for my master's.

My mother suggested Korea as an option for my studies, which I initially thought was insane due to reasons like distance, language, and the fact that it had never crossed my mind before. However, my mother's suggestions have an annoying tendency to become prophetic. Following her advice, I discovered the Korean War

Memorial Foundation, which offered a scholarship for students who were descendants of Korean War Veterans. This discovery filled me with excitement, as it became a ray of light shining into my dimmed hopes. After once again filling out numerous documents, obtaining recommendation letters, and meeting other requirements, I managed to secure a place at SNU. I informed the foundation about my successful application with great joy, and they reviewed and approved it. I was set to begin my master's program in Korea next semester.

I left Colombia on Friday, the 12th of February 2021, to ensure that I completed my quarantine before the semester started on the 1st of March. During my journey to Incheon, my first stop on the itinerary

was in Mexico. To my surprise, I realized there was a mistake in my Korean Visa that I had overlooked and needed to be corrected. This correction process took me a month to complete. I still remember standing at the Benito Juárez airport at 5 am on that Saturday, with my large blue luggage in the middle of that massive airport, having no idea what to do or where to go. However, a fresh breeze of hope swept over me as I remembered that if this was part of God’s plan, then amazing things were in store for me.

Coincidentally, a friend who rarely messaged me greeted me that weekend. I still don't understand why, but I don't question the ways of God. As it turned out, she had a sister living in Mexico and offered me a place to stay during that time. I managed to resolve the issue within a month and continued my journey to Korea. I arrived in Korea on the 20th of March 2021, in the midst of the pandemic and after all the challenges I had faced. Despite everything, this day felt remarkable, and I was certain that God's love was with me. When I arrived, my quarantine arrangement had been canceled, so I had to find a place to stay. However, things seemed to fall into place as I moved forward, and I still can't describe in detail how each issue was resolved day by day.

By this point, I was clear in my belief that I had God's company on this adventure. Despite the challenges of being a foreigner in a distant land, the most significant challenge for me was being far away from my loved ones. However, whenever I remembered God's presence with me, the feelings of sadness vanished. Moreover, my experiences of struggling to reach Korea and the events that followed made me realize that I was part of something greater, showing me the grandeur and magnificence of God.

The classroom experience and the multicultural environment of my classes made it one of the best experiences of my life. I learned not only from professors with great intellect and analytical capabilities, but also from the people around me who were placed there for a reason. My classmates came from diverse backgrounds, teaching me different perspectives and ways of thinking. This thought crossed my mind frequently, especially in class, prompting me to close my eyes and offer a prayer of gratitude for the generosity of God in allowing me to be there and learn from these wonderful individuals.

Life outside the classrooms was equally eye-opening. I had never experienced a cold winter like the one in Korea, so I worried about appropriate clothing. At that time, my budget was tight, and buying a long-padded coat was considered a luxury. Once again, to my surprise, a friend from the SNU church reached out, saying he had a nice padded coat that was too big for him but fit me perfectly. One less thing to worry about—I thought to myself, "Thank you, God."

The journey continued with many moments that made me realize I was not alone throughout my adventure in Korea. My thesis drafts and initial proposals were rejected, leading me to work an extra semester to improve them and fundamentally change the focus of my analysis. This adjustment came with additional costs, but once again, I received a helping hand from God, this time through the Daehakchon church, which generously provided crucial support to help me complete my academic work and thesis responsibilities.

And here I am now, a completely transformed person from the one who left his homeland to study in foreign lands. This transformation wasn't solely due to my studies or my professional growth, but rather

because I learned more about the grace and love of God. I saw firsthand the majestic and miraculous ways in which He guides us through storms to safe waters, allowing us to navigate the challenging waves of life while ensuring we have the means to survive.

I wish I could share more moments and convey how this experience has fundamentally changed my life, shaping me into the person I aspired to become. Ultimately, I now realize that even though I have dreams and aspirations for who I want to be, it is God who has the final say. This realization is a comfort for all of us, especially during times of hardship and turmoil. Those who love Him will find solace in the knowledge that everything will work out in the best possible way for us.

My plans now revolve around continuing to live in Korea, as it has gradually transformed into a place I can, to some extent, call home. I've been blessed to witness the diligent hand of God at work for me and others on numerous occasions, reinforcing the notion that this beautiful country holds a special calling and significance for me. While my family remains in Colombia, I am eagerly anticipating the opportunity to visit them and reunite with those closest to my heart. Yet, a crucial lesson I've absorbed is to entrust my journey and direction to the almighty Lord for the next steps. With absolute confidence and profound tranquility, I rest assured that wherever He guides me, that will undeniably be the best place for me to be.

Camilo Varon(행정대학원 졸업)

바이블 칼리지 요한복음 강좌

안녕하세요. 자유전공학부 22학번 김지희입니다. 지난 학기 수강했던 바이블 칼리지 강좌 <요한복음: 사랑과 생명의 이야기>의 경험을 간단하게 나뉘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사랑과 생명의 이야기>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혼자서는 못하는 목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크리스천이라면 한 번 이상은 꼭 읽어 보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책입니다. 표적과 담화로 이루어져 있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요한복음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이러한 구조로 진행될거라 생각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강좌는 한 구절 한 구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각 단어의 원어 해석과 상징의 관계를 보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제 삶의

바이블 칼리지 북클럽 후기

저는 언어학과 남승호 교수님의 추천으로 이번 학기에 북클럽 <결혼을 말하다>라는 크리스찬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저처럼 바쁜 일상을 핑계로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열려있는 단비와 같은 모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부족한 저를 굽어 살피고 계셨는데, 제가 여러가지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정작 중요한 주일 성수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부실한 신앙 생활을 이어나가는 와중에도 매번 고난이 닥칠 때마다 필요에 따라 드렸던 기도조차 그냥 지나치기 않으시고 항상 미쁘게 응답하시며 결국에는 주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기도의 끈을 이어가던 와중에 3월부터 우리 크리스찬 북클럽에서는 ‘결혼을 말하다’라는 유명한 도서의 저자인 팀 켈러 목사님의 저서를 읽었습니다. 해당 도서는 팀 켈러 목사님께서 본인의 삶의 경험을 녹인 풍부한 에피소드와 주님 안에서 가져야 하는 올바른 인간 관

바이블 칼리지 서울대 기도 학교

서울대 기도스쿨은, 서울대 학생들이 '하나님 나라 차원의' 기도를 배워 서울대 안에 부흥을 가져오는 중보자가 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금년 3월 14일부터 5월 23일까지 총 10주 간 진행되었습니다.

본인은 올해 박사과정으로 갓 입학한 새내기이지만 학부 입학 연도로는 상당히 고학번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다시 교정을 밟게 되었으며 “왜 다시 여기로 부르셨을까”에 대한 질문의 답을 발견해가는 도중, 수요일런예배를 통해 서울대 기도스쿨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대 기도스쿨에 첫 발을 내딛자마자 깨닫게 된 것은, 이미 주님께서 서울대에 많은 사람들을 준비시키셨으며, 부흥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차 강의를 지나면서 더욱

왕 되시는 예수님이 더욱 알고 싶어 강좌를 신청했었는데, 혼자 읽고 경험하는 예수님보다 말씀을 빚대어 바라본 예수님을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집중했다면 예수님의 정체성 그 자체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원한 성육신이었음을, 결국 ‘예수는 곧 그리스도’임을 한 학기 내내 묵상하였습니다.

제게 가장 은혜가 되었던 부분은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은 빛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말은 평상시에 많이 들어왔지만 그것을 끝이곧대로만 받아들였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 빛은 다른 것을 밝혀주는 성질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셨을 때

제에 대한 지혜를 토대로, 결혼한 부부나 커플의 소통법뿐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사람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롭게 임하는 자세에 대해 성경적으로 재미있게 풀어 쓴 책이었습니다.

매주 한 챕터씩 팀 켈러 목사님의 일화와 흔히 만날 수 있는 위기, 고난 등을 접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를 오디오북과 활자를 통해 접하고, 독서 후에는 북클럽에서 다 같이 읽은 내용에 대해 간단한 소감을 나누고 일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점을 논의했습니다. 매주 만날 때마다 크리스찬 선후배 동료들과 제원호 교수님과의 토론을 통해 평소 깊이 생각지 못했던 인간 관계에서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과 지혜에 대해 1시간 남짓 짧은 시간동안 배우게 되었는데, 굉장히 심층적이면서도 실용적인 북클럽이었습니다. 부족하지만 한 학기 동안 북클럽을 통해 얻은 지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내 기준과 입맛에 맞게 상

죄인된 모습을 깨닫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내 삶의 빛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으로 인해 죄인된 내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요한복음 4장까지 나가지 못해 진도가 느리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세밀하게 볼 수 있었던 강좌였습니다. 나의 신앙의 목적이 진짜 무엇인지, 혹시나 이기적인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김지희(자유전공학부 22)

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보였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토대로 그리스도와 같은 자세로 상대방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약 10주 정도 진행된 북클럽 <결혼을 말하다>를 통해서 매주 말씀 속에서 교제하며 크리스찬 선후배 동료들과, 제원호 교수님의 이끄심에 따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중에도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크리스찬 연결고리를 통해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기도를 드린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한 학기를 지나오면서 다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의 사랑 덕분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내밀한 소통을 이어갈 수 있게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김예랑(언어학과 석사과정)

도스쿨이 계속적으로 열리게 된다면, 모든 서울대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여 각자의 부르심을 깨닫고 위대한 중보자로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 캠퍼스의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서울대 안에서 일어날 중보자들을 통해 캠퍼스의 주권이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돌려지는 일을 곧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 6:10)

이찬중 (산림과학부 박사과정)

종 강 예 배



광고의 시간



찬양 준비



연주하는 식교제 시간 - 음기연



교수님, 간사님의 식교제



즐거운 식교제 - 농기연



즐거운 식교제-경기독



대표들을 위한 축복의 시간



즐거운 식교제 - 자기연



합심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